

# David deSilva 박사 , 외경, 강의 7, 자세히 보기: 마카베오 4서, 므낫세의 기도, 시편 151편, 아사랴와 세 청년의 아들의 기도

© 2024 David deSilva 및 Ted Hildebrandt

외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avid DeSilva 박사입니다. 7부, 자세히 살펴보기: 마카베오 4서, 므낫세의 기도, 시편 151편, 아사랴의 기도, 세 청년의 노래입니다.

고려해야 할 외경의 마지막 주요 작품은 4 Maccabees로 알려진 책입니다.

이제, 4 마카베오는 이 책의 제목이 3 마카베오가 마지막 제목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자는 마카베오 2서 6장과 7장에서 알려진 순교자들의 박해 이야기를 그의 초점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가 그의 책에서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초점이 됩니다. 반면에, 이 책은 고대 세계에서 더 좋은 제목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5세기 기독교 작가인 그레고리 나지안젠(Gregory Nazianzen)은 이 책을 이성의 우월성에 관하여(On the Supremacy of Reason)라고 부르는데, 이는 실제로 이 책이 존재하는 핵심 이유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4 마카베오는 철학적 논제를 철학적으로 시연하는 형식으로 쓰여졌는데, 그 논제는 하나님 중심의 이성이 정욕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열정이란 인간의 경험, 감정, 충동, 감각의 집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철학적 논증인 동시에 마카베오서 2장 6장과 7장에서도 기념되는 아홉 순교자의 업적에 대한 찬사이기도 합니다. 그 서사에서 순교하게 된 일곱 형제, 차례로 죽임을 당한 일곱 형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형제의 어머니가 된다.

내 생각에 마카비 4서는 말하자면 문화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문서입니다. 이 책은 언약과 토라를 준수하는 생활 방식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리스어, 수사법, 문화 및 철학에 능통한 유대인 작가가 썼습니다. 첫째, 저자는 그리스 철학적 윤리에 대한 자신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주제인 이성은 열정의 주인이며 그리스어권 세계의 핵심 철학적 주제입니다. 그 생각은 사람이 정신의 힘, 이성적 능력의 힘, 열정을 억제하고 감정이 더 좋아지지 않도록 유지한다면 미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 사람의 욕망과 충동이 그 사람 과 함께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 예를 들어, 두려움이나 고통의 감각을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용기의 미덕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의의 미덕은 탐욕, 자신에게 합당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충동,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정의로운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기타 악덕, 기타 경향을 제어할 수 있을 때 일관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더 큰 대화에 정통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반전을 부여합니다. 정념의 주인은 이성만이 아니라 경건한 이성, 경건한 이성, 심지어는 하나님 중심의 이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실천으로 단련된 이성이라고 하십니다 . 법은 사람이 미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정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마스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저자는 또한 그리스 문학에서 알려진 현자, 철학자 또는 현자의 이상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성자, 참으로 자유로운 성자,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되는 성자 등의 주제이다. 저자는 또한 형제애와 자손에 대한 사랑에 관한 그리스 철학적 논의를 대화합니다.

그의 소책자와 연설에 얽여 있는 많은 주제는 그리스 철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플루타르코스의 형제적 애정이나 모성적 애정에 관한 에세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 이 작가는 그리스 드라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입술에 가상의

애도를 표할 때, 만약 어머니가 약한 마음이었다면 자녀들이 순교한 후에 어머니가 말했을 것 같은 가상의 애도가 이어지는 연설은 바로 에우리피데스적 무대 에서 나온 것입니다 .

그것의 모든 문구는 에우리피데스가 헤쿠바나 안드로마케 또는 그의 비극에서 애도하는 다른 어머니들의 입술에 엮은 애도와 유사합니다. 그는 그리스의 운동 경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연설 전반에 걸쳐 운동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그리스에 기반을 둔 강력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그리스 기반 교육을 사용하여 토라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 프로그램으로 해석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기질의 개인은 그리스 윤리학자가 높이 평가하는 목표, 즉 자신의 욕망, 감정,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덕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감각입니다. 저자는 토라로 훈련받은 아홉 명의 인간이 어떻게 가장 잔인한 고문과 가장 극심한 감정적 갈등을 직면하고 덕을 위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보여줌으로써 이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마카베오 4서는 아마도 소아시아 남부 어딘가, 소아시아 남부와 시리아 사이 어딘가에서 잘 교육받은 유대인에 의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느 시점에서 순교자들을 위한 비문을 제안합니다. 이 미덕의 영웅들에 대한 적절한 비문은 무엇입니까? 그가 제안한 내용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알려진 실제 무덤의 유대인 비문과 언어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의 날짜에 대한 제안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책은 서기 2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수 있으며 원래는 구두로 전달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다. 저자가 사용하는 동사는 말하기 동사와 듣기 동사이다.

쓰기와 읽기의 동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도 실제 상황에 전달되도록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사건을 두 번 언급하고 우리를

공백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하누카나 그가 봉사하고 있던 공동체의 또 다른 유대인 축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마카베오 4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반유대인 편견에 대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반유대인 편견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강력한 변증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외부인이 가하는 전형적인 비판이나 비난에 맞서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옹호합니다. 나는 이 사과가 외부인에게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확실히 내부인이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이 외부인으로부터 직면했던 편견을 밀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토라를 준수하는 삶을 계속 추구하십시오.

예를 들어, 5장에서 우리는 폭군 안티오코스가 연로한 사제 엘르아자르에게 돼지고기를 한 입 먹는 것이 고문을 받아 죽는 것보다 더 현명할 것이라고 설득하는 것을 봅니다. 안티오코스는 무엇보다도 당신이 유대교를 따르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동물의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 왜 역겹나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부끄럽지 않은 즐거운 일을 즐기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자연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 유대인의 생활 방식에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나는 당신의 식습관 규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흰 고기인 돼지고기는 자연의 선물이고 당신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이 이곳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줬는데 이것을 혐오스러운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불의의 행위입니다. 게다가 정말 좋은 일이고, 부도덕한 일도 아닌데 즐거운 일을 거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 말은, 사람이 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얻는 즐거움에 대해 어떤 도덕적 반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4차 마카베오서의 저자는 토라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토라의 가르침에 따른 추론이 그리스

세계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훈련보다 더 나은 덕행을 위한 힘을 실어준다는 것을 보여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금해야 할 아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실한 유대인이 자신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 끊임없는 실천과 부단한 노력을 통해 미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되고 정욕의 충동을 거부하고 욕망과 육체적 감각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자에 따르면 토라는 잘 기능하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주인의 매뉴얼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좀 더 철학적인 프롤로그의 끝 부분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 안에 감정과 성격 특성을 심으셨다고 썼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도 감각 가운데 보좌에 마음을 두사 만민을 다스리는 거룩한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에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제되고, 정의롭고, 선하고, 용기 있는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열정, 욕망, 성향을 심으셨습니다. 마음이 열정을 통제하는 한 둘 다 괜찮고 이 순서를 따르는 한 이 내부 계층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저자는 토라를 준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삶의 방식은 결국 유대인이 그리스 철학자의 목표를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하자면 왕국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연극은 현자가 자신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현자가 왕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모든 덕을 갖춘 왕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저자는 토라 중심의 삶의 윤리적 열매가 그리스

세계에서 발견되는 어떤 윤리 철학과 나란히, 심지어 그 이상으로 윤리 철학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한다고 제안합니다.

안티오코스와의 그의 비판에 대한 그의 반응에서 늙은 사제 엘르아자르(Eleazar)는 당신이 우리의 철학을 따르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처럼 비웃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자제력을 가르쳐서 우리가 모든 쾌락과 욕망을 지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도 기꺼이 견딜 수 있도록 용기를 훈련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거래에서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공의롭게 교훈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경건을 가르쳐서 우리가 합당한 경외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자는 토라 중심의 삶을 옹호하기 위해 그 윤리적 열매, 즉 그리스 철학 윤리학에서 높이 평가되는 기본 덕목인 정의, 용기, 절제, 자제력을 끌어낸다.

여기서 그 중 하나는 그리스 윤리에도 나타나는 경건을 지지하는 것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스 윤리학자들이 높이 평가하는 기본 덕목은 토라에 따라 생활한 결과입니다. 외경의 다른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저자도 토라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에서 그는 이성이 광적인 성적 욕망의 충동뿐만 아니라 모든 욕망을 지배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는 네 이웃의 아내나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실, 탐내지 말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성은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더욱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로 그 번역을 수정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오경에 있는 그 명령의 그리스어 버전에 대한 최선의 번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읽어야 할 것은 율법에 따르면 네 이웃의 아내나 네 이웃의 소유물은 무엇이든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저자는 법이 우리에게 욕망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성이 욕망을 지배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법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것도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자는 계속해서 기원전 167년 헬레니즘 시대 위기의 순교자들을 토라로 훈련받은 마음은 어떤 열정도 지배할 수 있다는 법칙을 증명하는 극단적이고 최고의 사례로 제시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내부로부터의 공격이든, 고문 도구를 보는 두려움의 공격이든, 형제가 있는 것을 보고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의 공격이든, 미덕에 대한 자신의 헌신에 대한 어떤 공격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찢겨진 자녀를 보면서 자손에 대한 사랑의 공격, 또는 외부로부터의 공격, 이 희생자들의 육체에 대한 고문 도구의 실제 공격.

순교자들은 좋은 것을 누리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어떠한 공격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안티오코스는 일곱 형제에게 우정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정부에서 명성과 권력을 누릴 것을 약속하며, 그리스인의 생활 방식과 그의 후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이 누리게 될 삶을 즐기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은 선의 약속과 고통의 맹공격을 위해 악덕에 굴복하기를 거부합니다.

순교자들의 추론에서 주요 주제 중 일부는 그들이 하나님께 빛진 빛과 일시적인 이익보다 영원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에서도 순교 문헌에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추론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음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상호주의의 가치, 즉 상호주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보루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실제로 어머니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따라서 그 생명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하나님께 빛을 졌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순교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제와 어머니 모두 단기적인

이익 과 장기적인 고통을 생각하며 그런 식으로 유리함을 저울질하는 모습이 나온다. 각각의 경우에 그들은 단기적인 고통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지만 장기적인 이득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죽음 저편의 모든 것이 손에 있기 때문에 영원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하며 죽음 저편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예를 들어 폭군 안티오코스 자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몇 번의 강의에서 마카베오서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저자가 순교자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대표적인 순종을 드리는 것으로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국가의 형벌의 양을 어느 정도 채우시도록 기꺼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폭군이 그들에게 가한 고문 속에서 그들 자신의 몸을. 마카베오서 4장의 저자는 대속죄의 관점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몇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제사장 엘르아살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의 법 때문에 불타고 고문을 받아 죽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들을 위해 우리의 형벌이 충분하도록 하십시오. 내 피로 그들을 정결케 하고 내 생명을 빼앗아 그들의 생명과 바꾸라. 그런 다음 마카베오 4서의 결론 부분에서 저자는 순교자들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들은 민족의 죄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경건한 사람들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전의 학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사람들의 죄를 위한 속죄였다는 힐라스테리온(hilasterion)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거기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속죄의 희생이 성전에 있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화해시키는 것은 유대인이나 유대인 집단이 기꺼이 순종하려는 의지라는 유대 사상의 상당한 진보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고통을



의미하더라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고통 속에서 그들의 죽음은 속죄의 희생과 사실상 동일하고 기능적 동일이 됩니다.

백성의 형벌의 양을 채우고 또한 다른 유대인들과 교환하여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신약성경의 묵상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평행 발전은 한 사람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많은 사람 사이의 화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동일한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션의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외경의 매우 짧은 책 몇 권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 첫 번째 책은 므낫세의 기도입니다. 므낫세의 기도는 참회의 기도이며 마치 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의 연설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고 제목도 같습니다. 언약의 저주에 관한 한 돌아올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반복해서 읽는 것처럼, 므낫세의 죄로 인해 백성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이 나타나 국가를 위해 짧은 유예를 사더라도 유예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저자가 언약의 등을 꺾는 지푸라기로 지적한 것은 결국 므낫세의 죄입니다

이제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므낫세 이야기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열왕기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힌 므낫세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므낫세의 기도가 다른 책에도 나온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다른 책은 제2성전 후기 유대인들이 접할 수 없지만, 이것은 그 시대의 경건한 유대인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고백 기도를 작성하는 일종의 출발점이 됩니다. 역대하에 따르면, 나는 이것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역대하 33장에 따르면, 므낫세는 고난 중에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화해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진실로 복종했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요청에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의 통치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선견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그에게 말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실록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역대하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지난 지금, 므낫세의 기도의 저자는 자신이 기도문을 만들고 싶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싶어하는데, 그 기도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악함으로 인해 유다의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만든 왕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므낫세의 기도는 실제로 적어도 기독교 교회에서는 적어도 3~4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아름다운 참회 기도 중 하나의 맛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이 기도에서 발췌한 모든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은 자비로우신 은혜로 죄를 뉘우치는 이들에게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크신 자비로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찾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는 자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돌이키는 마음과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회개함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하도다 당신에게 죄를 지었지만 당신은 죄인인 나를 회개시켰습니다. 주님, 저의 죄가 많습니다. 그들은 많습니다.

이제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긴 법을 압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내 죄와 함께 나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나의 나쁜 행동을 당신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하지 마십시오. 나를 땅 깊은 곳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주는 회개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니이다

나에게서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친절한지 보여줄 것입니다. 비록 제가 합당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크신 긍휼로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외경의 또 다른 짧은 전례편은 시편 151편입니다.

시편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 책이 시편 150편으로 끝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시편 두루마리에 포함되는 다른 시편도 여러 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콤란의 시편 두루마리에는 150편이 넘는 시편이 있습니다.

최소한 공동체가 전례 예배에 사용했던 찬송가 본문이 4~5개 더 있습니다. 기껏해야 그 시편들은 정경판 시편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외경에서 볼 수 있듯이 시편 151편은 원래 두 개의 별도의 시편으로, 각 시편은 많은 정경 시편의 패턴을 따라 다윗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고 묵상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과 그 여파에 대한 반성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시편을 찾아보면 그의 형제들보다 다윗이 선택한 것을 반영하는 시편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반영하는 시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요 사건은 어떻습니까? 제2성전 시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사건의 관점에서 마치 다윗이 쓴 것처럼 시편을 더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시편 중 첫 번째 시편은 결국 시편 151편의 처음 3분의 2가 되며, 하나님이 그의 큰 형들 대신에 다윗을 선택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 시편 중 두 번째 시편은 이제 시편 151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며, 다윗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의 삶의 이러한 측면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썄요, 키가 크고 인상적인 형제들 대신 다윗을 선택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웃 나라들보다 더 작고 덜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을 귀히 여기셨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도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키와 외모의 문제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또한 여기 시편 2편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거인족과 대결하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쪽의 셀레우코스 왕국이나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또는 더 나중에는 서쪽의 로마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인들을 상대로 승리한 선례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지막 두 전례 부분에 대한 다니엘의 추가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아사랴의 기도와 세 젊은이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의 내러티브는 느부갓네살이 그곳 두라 평지에 세운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여 눈을 뜬 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야기입니다. 열려 있는.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기를 거부하면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기간 동안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본문, 심지어 외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마카베오 4서는 18장 전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적어도 세 번 언급합니다. 우리는 또한 유대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에 영감을 받아 시편과 기도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다윗의 삶의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시편이나 역대하 33장의 므낫세의 회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므낫세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따라서 다니엘 3장의 이야기는 다른 전례 작품을 창작하거나 최소한 기존의 전례 작품을 다니엘 서사에 엮는 영감의 포인트가 됩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은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분명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세 젊은이가 풀무에 던져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아사랴의 기도에 의해 제공됩니다.

풀무 불에 타지 않는 것은 찬양과 구원의 시편을 읊는 분명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확장된 다니엘 3장에서 세 젊은이의 노래로 공급됩니다. 이 두 전례 작품은 모두 팔레스타인 땅 어딘가, 이스라엘 경계 내의 어딘가에서 히브리어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악한 왕의 손에 넘기셨으니 기원전 175~167년 헬레니즘 시대의 위기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 시편의 그리스어 버전에서 반역자를 뜻하는 단어는 *apostatai*, 즉 배교자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역사적 아사랴의 상황과 달리, 『아사랴의 기도』의 저자는 단지 불의한 왕을 문제의 근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교한 유대인들을 문제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원전 175년과 그 이후의 기간에 훨씬 더 적합했을 것입니다. 이는 이 특별한 기도문을 구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시기라고 거의 확증합니다. 세 사람의 노래는 실제로 그보다 훨씬 오래된 작품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만이 40~50절로 구성된 감사의 시편 전체를 세 청년의 이야기와 연결시킵니다.

따라서 방정식에서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추방 이후 어느 시점에서나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위 삼위일체의 노래는 원래 두 개의 찬양 시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뚜렷한 패턴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노래의 처음 7~8절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래의 대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사랴의 기도를 살펴보면, 바룩의 참회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공의와 공의로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킨 책임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사라는 언약에 따라 사는 것과 관련하여 그 나라의 신실함을 고백하면서도 회복의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기도의 청원 부분에서 그는 백성의 사랑하는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과 화해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이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그분이 우리를 불타는 풀무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기도가 처음에는 이야기와 독립적으로 구성되었고 나중에는 그 지점에서 단순히 짜여졌을 것이라는 또 다른 암시입니다. 민족적 회개의 기도이자, 언약저주 전체를 역전시키기 위한 기도이다. 아사라는 약속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행동하시기를 하나님께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운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일종의 영적인 속건 제물로 진심 어린 슬픔과 겸손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규정된 제사를 바치는 수단이 그에게는 그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따라 아사라의 기도에서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는 통치자도 선지자도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도 없고 제사도 없고, 특별한 예물이나 향도 없고, 예물을 가져다가 자비를 받을 곳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만 마리의 살진 어린 양을 가져온 것처럼 숫양과 황소의 온전한 번제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상한 영혼과 겸손한 심령을 기쁘게 받아 주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신 앞에서 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따라서 성전에 접근할 수 없는 이유가 유배 생활 때문인지 아니면 기원전 167년에서 164년경 메넬라오스 치하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전이 배교자들의 통제를 받은 결과인지 저자는 진심 어린 회개가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수천 개의 속죄 제물. 마지막으로 세 청년의 찬송을 다시

살펴보면, 원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찬양 시편이었기 때문에 이 찬송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일반적인 공식을 따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영원히 다른 모든 이들 위에 높이 올려지셨습니다. 그 구절의 후반부는 노래의 첫 부분을 계속해서 후렴합니다.

시편과 마찬가지로 정경 시편에도 끊임없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비는 모든 구절에서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것은 구절의 전반부뿐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첫 부분은 천사의 궁정으로 둘러싸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성이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성전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기념합니다. 시편이 실제로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았거나 주로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구성되었다는 또 다른 흥미로운 표시는 물론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이 풀무 속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덕분에 성전이 폐허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의 두 번째 부분은 다른 형태를 취합니다.

창조의 모든 다양한 측면을 불러 창조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예를 들어, 첫 구절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여호와를 송축하리라고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보다 영원히 높이 높이십시오.

그 구절의 후반부는 이 노래가 진행되는 동안 30번 이상 나오는 후렴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내용에서 주님의 모든 일이 주님을 찬미하는 것에서 주님의 각 개인의 일을 언급하고, 그것을 부르며, 각 사람에게 주님을 찬미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이 부분은 매우 잘 구조화된 진행을 따릅니다.

처음 여섯 구절에서 저자는 천체와 하늘의 존재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라고 외칩니다. 그런 다음 다음 10절에서 저자는

하늘 영역의 모든 현상, 주로 날씨와 관련된 현상을 불러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 51절부터 58절까지에서 저자는 땅의 현상들과 땅의 동물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여덟 구절에서 그는 다양한 집단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원히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을 요청합니다. 외경의 기도와 우리는 현재 다양한 외경에 포함되어 있지만 므낫세의 기도와 같이 독립된 기도를 살펴보았으며 구약 성경의 기도가 지속적인 예배 생활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냅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개인기도 생활. 그리고 그들은 구약 사이의 기간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기도, 예배, 상호 작용, 경건의 기간이었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확실히 남겨줍니다.

나는 또한 세 청년의 노래와 아사랴의 기도가 므낫세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회에서 계속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가톨릭 예배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성공회 교회. 이것으로 외경에 대한 우리의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며, 이어지는 강의에서 우리는 외경이 신약성서 자체뿐 아니라 외경을 통해 초기 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몇 가지 개요를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가장 형성적인 세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대인과 기독교 공동체 모두에서 수세기에 걸쳐 정경에서 외경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avid DeSilva 박사입니다. 7회기, 자세히 살펴보기, 마카베오 4서, 므낫세의 기도, 시편 151편, 아사랴의 기도, 세 젊은이의 노래입니다.